

“핵폐기물 언제까지 쌓아만 둘 건가”

전국 116개 시민단체 대책 촉구
영광 한빛원전 등 곧 포화상태
“핵발전 멈추지 않고는 답없다”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핵폐기물 대책 마련 촉구 시민선언 ‘핵폐기물 답이 없다’에서 환경운동 연합 등 참여한 각 시민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원전) 가동 40년,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 수립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3월 11일)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6일 핵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세상 광주전남공동행동 등 전국 116개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핵폐기물 답이 없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연간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물질”이라며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은 멈추지 않는 한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쏟아져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을 추가로 짓는 대신, 국

민이 납득할 만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우려대로, 영광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 내부 임시저장소에 폐연료봉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정부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타고 남은 폐연료봉 등) 처리방침을 40년 가까이 세우지 않고 미뤄왔기 때문이다. 원전사업자는 매년 쏟아져 나오는 폐연

료봉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986년부터(한빛 1호기 가동) 매년 쏟아져 나오는 폐연료봉을 발전소 내부 물탱크 안에 ‘임시’ 보관해왔다. 그러던 중 물탱크 저장 공간 포화가 예상되자 수년전 ‘조밀력 시공’(물탱크 내부 공간을 기존보다 더 촘촘히 조밀하게 나누는 시공)을 거쳐 기존보다 더 뾰뚱하게 폐연료봉을 물에 담가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빛원전(1~6호기)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은 6302다발(2626t)로 정상 가동이 이어진다면 2026년께 저장용량(9017다발·3848t)이 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원전 전문가들은 폐연료봉이 쌓이는 양만큼 사고 위험성과 규모도 커지게 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인 폐연료봉 하나하나가 최대 10만년 이상 독성물질을 내뿜을 정도로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다, 지진 등 자연재해나 기기결함에 따른 사고 등으로 임시 저장고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조 속 임시보관 상태의 폐연료봉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음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해일(쓰나미)이 불러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는 원자로에 있던 핵연료(연료봉)만큼이나 발전소 내부 임시시설에 보관 중이던 폐연료봉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동일본대지진과 지진 해일이 촉발한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영향으로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5 달뜨기 07:24
해질 18:33 달지기 19:03

미세먼지 '맑음'

맑은 가운데 안개 짙게 끼는 곳 있었다.

광주	맑음	3/14	보성	맑음	1/14
목포	맑음	4/9	순천	맑음	6/16
여수	맑음	5/15	영광	맑음	2/10
나주	맑음	1/13	진도	맑음	5/10
완도	맑음	5/12	전주	맑음	2/12
구례	맑음	2/15	군산	맑음	3/10
강진	맑음	3/13	남원	맑음	2/13
해남	맑음	2/9	흑산도	맑음	4/8
장성	맑음	1/1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0.5~2.0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 생활지수

◆ 생활지수

높음

보통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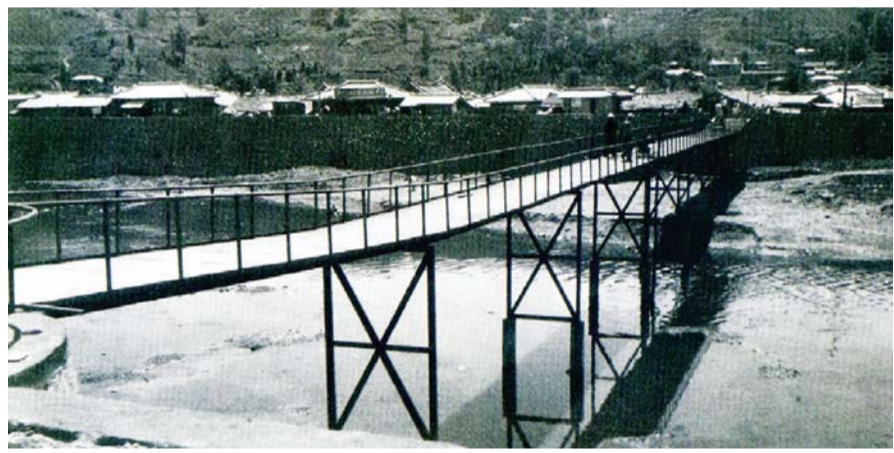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07:58	20:23	02:36	15:08
목포				
여수	03:29	15:56	09:57	22:01

◇ 주간 날씨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	☀	☁	☀	☀	☀	☀
0/17	2/15	6/12	4/12	3/14	3/14	3/15



1970년대 광주시 남구 방림동 뽕뽕다리 전경.



7일 준공식을 앞두고 공사를 마친 새 뽕뽕다리.

추억속 방림동 뽕뽕다리...32년 만에 돌아왔다

32년전 철거 자리에 새다리
남구 오늘 준공식 정식 개통

“32년 만에 뽕뽕다리가 돌아왔다”
광주시 남구는 “7일 오후 4시 광주시 남구 방림2동 뽕뽕다리에서 준공식을 열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뽕뽕다리는 공사장에서 안전 발판으로 쓰이는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철판으로 만들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1970~80년대 당시 방림동 주민들은 뽕뽕 뚫린 공사판 다리를 건너 소풍을 가고, 시내로 놀러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방림동 사람들은 일터가 있었던 학동과 남광주역, 도심 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뽕뽕다리를 건너야 했다.
그래서 다리 위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당연히 건넜다. 뽕뽕다리는 가난했던 방림동 사람들에게는 추억과 애환이 담긴 장소이다.

광주전 일대에는 여러 개의 뽕뽕 다리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뽕뽕다리는 방림동의 다리였다.
방림동 뽕뽕다리는 1986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방림교가 들어서면서 철거돼 사라졌다. 이후 방림교와 학림교 중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동에 거주하는 방림초등학교 학생들은 광주전을 건너기 위해 수백m를 돌아가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들의 청원으로 남구는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억5000만원을 들여 32

년만에 뽕뽕다리가 있던 곳에 새 인도교를 만들었다. 학림교와 방림교 중간 지점에 길이 50m에 폭 3m 규모다. 뽕뽕다리는 과거 구멍이 뚫린 철판이 아닌 시멘트 다리지만 바닥에는 아스콘으로 뽕뽕 뚫린 구멍을 그려 넣어 추억을 재현했다.
남구 관계자는 “뽕뽕다리가 다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다리에 얽힌 추억과 함께 보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5·18기념행사 슬로건 선정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 상임행사위원장 김우식)가 올해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슬로건으로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를 선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행사위는 “슬로건 전국 공모 결과 800여 건이 접수돼 메인 슬로건 1건과 우수 슬로건 10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메인 슬로건으로 뽑힌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는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오월정신

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에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가 빛나도록 함께 뜻을 모아 행동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위는 이와함께 7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했던 지난 출범식과 달리 올해는 5·18민주묘지 참배 후 5·18민주광장에서 다채롭게 꾸민다. 5·18민주광장에서는 오월풍물단 길놀이 공연, 뮤지컬컴퍼니 씨소 공연, 제39주년 5·18행사위원회 출범선언문 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진행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 폐기물 수집업체 수의계약→공개입찰 변경

광주시 북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한다.
6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처리 추진방안 거버넌스위원회’는 보고회를 열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북구는 지난 1988년부터 30여 년간 1

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을 맡겼으면 서로 감사는 하지 않아 그동안 구의회,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북구는 지난해 12월 학계, 법조계, 시민·환경단체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처리 추진방안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기준치 5.0 배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신산업지원 4개 단태양광·전력·연료·제약·에너지·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과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신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